박태원 교수의 38

불교로 보는 신생

기업 현장의 노사 관계를 오래 겪은 후배가 들려준 경험담이 흥미롭다. "한 번은 임금 교섭 대화가 꽉 막혀 답답했는데,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노조측 불편한 심기의 원천은 명함에 있었지요. 단체 명함을 사무직 직원들에게만 만들어 준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막후 대화에서 그 사실을 감지하고는 즉각 생산직 직원들에게도 명함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자 임금 교섭은 너무도 쉽게 타결되더군요."

후배는 이 경험에서 한국인의 강렬한 평등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리 있는 통찰이다. 한국인들은 현실의 차이가 인간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평등 의식이 유별나게 강한 듯 하다. 이 평등 선호의 잠재 성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를 읽는 코드로서 이 평등 의식은 충분히 주목할 만 하다. 한국인의 강한 자기 실현 욕구, 혁명적 체질, 좀처럼 꺾이지 않는 투지의 원천을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질 때마다 삭발하며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온몸에 새기는 제자. 비록 30 초반의 나이지만 그의 머리 속에 사진 찍듯 새겨 넣은 한의학 서적의 양은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스승은 제자 한 사람 제대로 키우는 일에 평생 공부의 보람을 느끼고, 제자는 스승이 평생의 체험을 정리하여 틔워주는 한의학의 혜안에 전율하듯 몰두했다.

졸업 후 작년부터 부산에서 개업한 제자는 평소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중이다. 짧은 기간 안에 보여준 그의 눈부신 의술 활동이 부산 한의학계의 화제가 될 정도이다. 그런데 몇 일전 찾아온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주위의 모함과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뒤에서 행하는 음해는 그가 기대하는 인간적 양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인간을 향해 반듯한 큰 뜻을 가다듬고 있는 그로서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중생심의 비열함이 곤혹스러웠다. 왜곡된 평등 의식에서 분출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그러나 이 평등 의식이 왜곡되면 곧 추한 얼굴이 등장한다. 남 잘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기심이 그것이다. 앞서 가는 사람 발 걸기, 흠집내기, 깎아 내리기, 음해, 모함, 비방이 기승을 부릴 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왜곡된 평등 의식을 만나게 된다. 한국인의 역사는 출중한 인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데 인색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호소력을 지닌다.

아끼는 한의사 제자가 있다. 강인한 집념과 의지, 목표에 몰입하는 놀라운 집중력과 요즘 보기 드문 남성적 의리 정신이 불심(佛心)과 어우러져 여러 모로 돋보이는 선근(善根) 학인이다. 존재 성숙에 필요한 과감한 결단력과 곧은 마음을 지닌 멋진 청년이다. 그 수승한 인간적 품성과 자세가 의도(醫道)에서 제대로 열매 맺기를 바라며 진주 한의사 어른께 인사시킨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흔쾌히 제자로 거두어 주신 스승의 제자 키우기와 제자의 공부 하기는 참으로 보기 좋았다. 평생 공부에서 터득된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인도하는 스승, 새로운 과제가 주어

타인이 잘되는것 보고 기뻐하기란 쉽지않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비방은 강한 그를 흔들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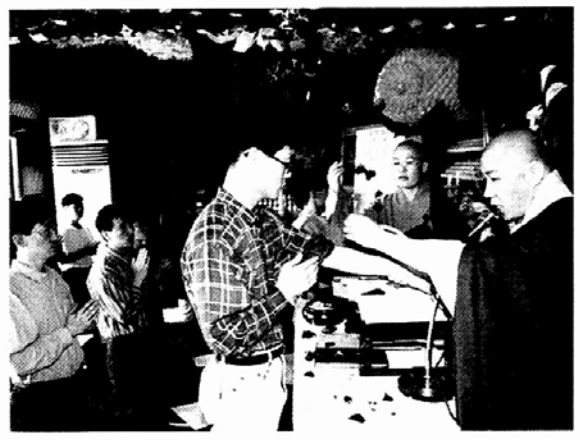
중생은 뿌리 깊은 인간 혐오 성향을 품고 있다. 그 타자 부정의 면모를 부처님은 '성내는 마음(嗔心)'이라 일컫는다. 증오, 시기, 질투, 원한, 공격 등은 모두 이 타자 혐오의 표현들이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일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일이 더 쉬워 보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생심의 습벽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탈의 경지에 다가서기 위해 계발해야 할 '제한 없는 네 가지 마음(四無量心)' 가운데 하나가 '더불어 기뻐해 주는 마음(喜心)'이다. 한국인 특유의 평등의식이 시기심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길, 이 땅에서 인재를 보호하고 키우는 길을 희심수행이 열어줄 것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삼보 귀의 보살의 길 가겠다" 다짐

참불자의 길 수계



◇신행단체나 사찰의 수계법회에 참석해 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자.

"법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아직 수계를 안 받아서 법명이 없어요."

불자라면 누구나 오계 내지는 보살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자칭 불자(佛子)라 하면서도 계(戒)를 받지 않아 법명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자들을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왜 계를 받아 지니지 않았을까? 이들이 다른 불자들 보다 신심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계가 무엇인지, 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계(戒)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근본정신이 계에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불문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계를 받아 지녀야만 한다.

계란 불자로서 삶을 지탱해 주는 질서이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제적 명령이 아니다.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불자 스스로 삼보에 귀의한 제자가 되어 보살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향한 물러섬이 없는 삶의 결단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오계(五戒)는 재가 불자로서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짚어 놓은 것이다. 첫째 살생하지 말 것, 둘째 도둑질하지 말 것, 셋째 간음하지 말 것, 넷째 거짓말하지 말 것, 다섯째 술 마시지 말 것. 이렇게 다섯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이 다섯가지를 항상 유념하며 행동해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

보살계(菩薩戒)는 위로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서원한 보살들이 가지는 계율이다. 재가불자들이 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차원의 수행에서 나아가 대중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포교사의 역할, 자리이타의 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가불자가 생활 속에서 지킬 계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수계는 평생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걸까?

김정림(서울 성산동)불자는 "어떤 분은 평생 한번만 받는 것이라 하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도 하는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 차례 계를 받으면, 법명도 여러 개가 될 텐데 그건 또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

삶 지탱하는 질서 무상보리의 근본

인환(동국대 명예교수)스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번 계를 받아 지녀 그 계를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디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하다보면 마음따로 행동따로 일 때가 더 많지요.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망각할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수계법회에 참가해서 자신을 추스르고, 불자의 사명을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스님들이 설하시는 겁니다. 또 법명은 한가지만 지니되, 이미 법명을 받았다면 수계 전에 스님께 알려 계첩에 그대로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

계를 받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하는 수계법회에 참여해야 한다. 초심자를 위한 오계 수계법회는 신행단체의 입문과정 수료식 때나 일반 수계법회에서 행해지고, 보살계 수계법회는 매년 봄가을 경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리므로 이때를 이용해 계를 받으면 된다.

이은자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⑮ 진소경에 대한 답서(1)

중생의 병 '부처와 중생' 나누는 분별심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그대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둔함을 아는 이것도 둔한가?' 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하다는 생각만을 간직하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정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되지만,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됩니다. 날카로움을 취하고 둔함을 버림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일체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라면 법(法)은 평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한 것이 모두 허망하며, 진실을 찾는 것이 잘못된 짓입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이 결코 날카로움을 취하고 둔함을 버리는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한다면,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바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허망한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알음알이를 내게 되며, 주관(六根)이니 객관(六境)이니 오온(五蘊)이니 십팔계(十八界)니 하는 것에 사로잡혀 헛된 환상을 조작해내며 끝마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가운데는 스스로를 근기가 둔하다고 여겨서 형식적 신앙생활에 만족할 뿐,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로 공부해보려는 발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선을 공부해서 견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공부에 만족해버리고, 견성은 늘 저멀리에 있는 다가갈 수 없는 이상(理想)으로만 남겨두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꼭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근기가 둔하니 날카로우니 하는 것은 분별하는 생각이다.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동일하다.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은 이런 저런 생각이라는 생멸하는 상(相)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사실 즉 비상(非相=空, 機用, 움직임)이다. 근기가 둔한 사람이나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이나 생각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생각한다는 사실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는 움직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며,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아이큐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즉 무상하게 변하는 생각의 내용이 어떠하든, 생각하고 있다는 불변의 사실이 바로 마음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상근기와 하근기가 따로 있으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으며, 방편과 실법(實法)이 따로 있으며, 수행과 깨달음이 따로 있다. 그러나 생각의 내용(相, 色)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생각은 곧 생각한다는 움직임(非相, 空)뿐인데, 그 움직임에는 상근기도 하근기도 부처도 중생도 방편도 실법도 수행도 깨달음도 없다. 이처럼 모든 차별상(差別相)은 동시에 어떠한 차별상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이다. 그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는 '색(色)과 공(空)이 동일하다' 하고, 〈금강경〉에서는 '상(相)이 곧 비상(非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둔근기 중생이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중생이 앓고 있는 병의 본질은 바로 '자신은 중생이고 부처는 따로 있다'고 하는 분별심(分別心)일 뿐, 다른 병이 없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앓고 있는 이 어리석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불교의 진리에 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침묵을 지킴으로써, '지금의 나' 이외에 어떠한 부처도 따로 없다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을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로의 내가 부처임을 머리로 믿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고, 가슴 깊이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공부가 한 고비 넘어가는 것이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奉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

"큰 정신 큰 대학"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2001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 [야간]
(02)2260-3097~8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
원서교부 및 접수
2001.5.30(수)~6.8(금) 10: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1.6.14(목)13:00, 본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지도자과정 ◆
• 수강과목 :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 지원자격 : · 조계종 대덕 법계 품수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방법,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전형일시 : 2001.6.15(금)14:00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02)2260-3606~7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전공
•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 공연영상예술학과 : 공연예술 · 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 한국음악 · 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원서교부 및 접수
2001.5.23(수)~6.5(화)10: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1.6.9(토)10:00, 본대학원
전형방법
석사과정 : 논술 및 면접
*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 모집분야 : 문예창작 · 공연예술, 영화영상예술 · 불교미술, 한국음악 · 문화재,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 지원자격 :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암 주지급 스님
· 언론 · 문화 · 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 모집분야 관련 학원장 우대
· 기타 모집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전형일시 · 방법, 원서교부 · 접수일시 : 연구과정과 동일

불교문화대학원 [경주 · 야간]
(054)770-2394
모집과정
지도자과정(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석사과정은 2002학년도 전기 모집예정임
지원자격
•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 국악인, 불교미술 종사자 및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자
•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원서교부 및 접수
2001.6.4(월)~6.14(목) 9: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1.6.16(토)14:00, 본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